

한국 일간지 가판의 성격과 문제*

정연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중앙일보》가 2001년 초쇄 가판을 폐지하고 3년이 지난 2004년 몇 개의 중앙 종합 일간지들 사이에서 다시금 초쇄 가판의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있는 듯 몇 개월이 지나도록 초쇄 가판을 폐지한 신문사는 한 곳도 없었다. 초쇄 가판을 유지하는 신문사들의 이유는 잘못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항변을 하는 반면 독자나 학자들은 그런 과정에서 신문이 서로 너무 닮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압력을 받아 중요한 기사를 삭제 내지는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어 폐지되어야 할 관행이라 평가한다. 이 논문은 초쇄 가판이 정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은지, 배달 등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짚어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간으로 발간되는 중앙종합일간지 8개를 골라 이들의 개판 시스템을 조사하고 초쇄 가판과 시내 배달판이라고 하는 최종판을 수집하여 이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내용 분석했다. 분석결과, 초쇄 가판은 배달 등 영업을 위해 현재와 같이 판매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판매를 통한 대외 공개로 인해 신문 상호간의 모방이 심해지고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삭제되는 등 독자를 위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모방의 경우에도 작은 신문이 큰 신문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여론 다양성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키워드: 가판, 초쇄 가판, 매체간 의제설정, 미디어와 권력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ygcheong@hallym.ac.kr

1. 서론

1) 문제의 제기

《중앙일보》가 2001년 10월 16일자를 기하여 가판 제작을 하지 않은 이후 3년에 가까운 시기를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신문에서도 가판제작을 앞으로 정지하려 하거나 정지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04년 올해 들어 메이저 몇 개의 신문사들이 가판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본다는 말(조현호, 2004)은 있었으나 실현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가판 폐지가 언론사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명백히 좋은 일이라면 《중앙일보》의 시도와 함께 모든 신문들이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시행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인가? 《중앙일보》의 가판 폐지 결정 이후 일부 다른 신문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중앙일보》가 사실은 해서는 안될 일을 대 독자 선전 차원에서 무리하게 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문들이 《중앙일보》가 갖추고 있는 만큼의 취재/보도/제작/배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가판제작을 하지 않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즉 가판 제작을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에 비해 독자나 신문사에 득도, 해도 되지 않아 과거에 해오던 관행을 굳이 그만둘 필요가 없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인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문업계가 아닌, 독자나 학자 언론의 주요 취재원은 《중앙일보》의 가판 제작 폐지가 옳은 일이었다는 쪽으로 종종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앙일보》가 가판 제작을 정지한다는 논의가 있는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서울 소재 언론인과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5%가 ‘가판신문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런가 하면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중앙부처 공무원(86.5%), 언론단체 종사자(72.5%), 언론인(68.0%), 자치단체 공무원(49.1%) 등의 순으로 높았고 ‘가판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15.0%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가판신문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과 정부 부처

를 상대로 한 로비용'이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신속 정보 전달을 위한 독자 서비스'(15.0%)라거나 '경쟁신문 보도 확인을 위한 낙종 방지용'(12.0%)이라는 대답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적인 의견 표명도 있었다. 《중앙일보》의 가판 폐지가 실현되고 난 며칠 후 10월 23일,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12개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이 “신문개혁의 걸림돌인 가판제도는 고쳐져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중앙일보》 가판 폐지에 손을 들어주었다. 《중앙일보》의 가판 폐지를 계기로 다른 신문사들도 비효율적인 가판제도를 폐지하라면서 자신들의 부처 홍보·공보담당은 매일 조 편성을 해서 야근을 해가며 가판을 점검하고 모니터해서 보고하는 일을 반복해왔다고 실토했다. 이런 과정에서 관공서는 물론 기업체 등에서 “불리한 기사가 있으면 보도자제나 정정을 요청, 그 과정에서 신문사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가판 폐지 환영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의견에 기초한다면 《중앙일보》의 결행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기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신문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 《중앙일보》 가판 폐지가 시행되고 난 직후의 종합지 편집국 간부들과 판매담당자들은 “가판 폐지가 당장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중앙일보》가 가판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개혁적 선택을 했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평가는 최근에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들어 본 중앙일간지의 데스크급 간부들의 말로는 가판 폐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하는 회의였다. 《중앙일보》의 베끼기도 자신들의 판단으로는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기승이라는 설명이다. 초판을 다른 신문들과 같은 시간에 제작을 해놓은 상태에서 인쇄만 하지 않은 관계로 마음 놓고 베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어느 쪽 해답이 더 옳은 것인가? 현재의 가판제도는 아무런 문제를 가지지 않고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 가판을 폐지해야 할 아무런 당위적인 명분이

있지 않는가?

이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의 가판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 가판 폐지가 한국 사회를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가판 폐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가판 자체가 신문의 영업 이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독자의 이익에 가판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양질의 기사를 독자들이 볼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은 가판 제도의 운영이 지니는 성격을 파악하고 이의 공과를 따져 묻는 본격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야 하겠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신문들은 특정 지면을 특정 지역에 맞춰 하기 위해서거나, 속보성이 피할 수 없는 가치로 채택될 만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개판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가판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다. 거리에서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가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신문 제작을 한 내용이라는 본판과 대비되는 시험판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험판과 같은 성격의 신문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더라도 현재 서구사회에서

는 신문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일부만을 대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일이 없다는 점은 두루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가판의 의미와 정당성을 따지는 서구에서의 연구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날 일어난 일을 그날 오후 5시쯤 원고마감을 해서 6시쯤 신문을 찍어내는 초판 운영방식이 신문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연구는 더러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분명한 영향은 무엇보다 시간 부족일 것이다. 영국 신문의 한 편집자가 쓴 책에서 자신의 업무에 주어진 가장 큰 압력을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시간 부족이었다고 적고 있다는 사실(Wintour, 1972, 3쪽; Golding, Elliot, 1979, 123쪽에서 재인용)은 한국과 같은 형태의 가판이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 저녁뉴스까지를 참고하고 나오는 서구 신문의 1판 마감시간을 감안할 때, 한국 신문의 가판 운영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다. 마감시간이 이른 한국의 경우 오후 늦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의의 내용은 초쇄 가판에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쓰지 못하거나 가상으로 쓰기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초쇄 가판 이후 여러 가지로 신문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 다른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다른 뉴스 매체를 적극적으로 참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수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수정을 전제로 신문을 만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신문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될 경우, 가판 수정을 위해 시도되는 압력이 매우 적극적일 수 있음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신문 기사의 선택 또는 보도와 관련된 서구의 기존 문헌은 이러한 압력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의 수정 요구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부로부터의 수정 요구이다.

외부로부터의 수정 요구는 신문보도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집단과 개인이 해당될 것이다. 어떤 압력들이 있을 수 있는가는 갠스, 슈메이커와 리즈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잘 정리해 놓고 있다. 갠스의 경우, 사업상 압력(광고주로 부터의 압력, 제휴방송국으로부터의 압력), 정치적 압력

(정부의 압력, 이익단체의 압력), 동료로부터의 압력(미디어 비평을 하는 동료나 다른 매체로부터의 압력)을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으로 보았다(Gans, 1979, 253~278쪽). 그런가 하면 슈메이커와 리즈는 정보원(이익단체, 경쟁관계에 있는 미디어조직을 포함하는), 광고주와 수용자, 정부, 미디어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원천으로 꼽았다(Shoemaker & Reese, 1996, 175~220쪽).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가판이 없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갠스나 슈메이커와 리즈가 설명하고 있는 바를 추론해보면 이 가운데 가판의 내용을 가장 강력하게 바꾸어 놓을 집단은 정부 및 정치 집단으로 보인다. 갠스의 경우 기사를 변화시키려는 압력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광고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는 사적 기업에서보다 정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할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불만토로, 회사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각종 합법적 조사, 법률에 의한 기자들의 행동통제, 지지자의 집단적 항의가 그 내용이다.

슈메이커와 리즈의 경우에도 광고주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해, 보도가 있고 나서 나타날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압력은 정치와 관료집단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 내에는 자신들의 통치능력과 효율성을 알리기 위한 인력이 3,000명 이상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들에 의한 의제 설정 기능이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의 가능성은 뉴스의 생산과정을 다루는 많은 책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가령 하트리의 경우에도 정부와 미디어 조직의 고위급 간에 오갈 수 있는 협상을 ‘old boy network’(Hartley, 1982, 52쪽)라는 용어로 묘사하면서 몇 가지 관련 역사적 사례를 들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슈드슨(Schudson, 1978)은 미국 정부가 정부홍보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신문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1930년대 루스벨트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정부 내 홍보조직의 가동을 기점으로 정부로부터의 정보제공이 채널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러

한 조직을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검열이 아니라 홍수와 같은 정보제공으로 뉴스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전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이른바 뉴스 관리(news management)라 불리는 정부 조직의 행위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기자들이 정부로부터 흘러나오는 내용을 검증 없이 받아 적게 하는 관행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의 후속보도가 나와 그간의 정부의 발표가 거짓임이 밝혀지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고 적고 있다.

베넷은 기자와 관리들의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를 집중 조망한 시갈(Sigal, 1973) 자료를 인용하면서 언론인과 정부 관료들이 맺을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료가 적대적이지 않다면 출입처 등을 통해서 맺은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호의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Bennet, 1996, 120~121쪽).

신문보도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압력은 표준화의 압력으로 종종 설명된다. 경쟁사와의 비교, 특히 통신사나 유력 신문(예를 들어 《뉴욕타임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신문이 집합적인 보도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베넷은 집단적인 보도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사실만 보도하려는 미국 신문의 이러한 경향은 안전을 우선시하는 신문 경영진의 판단 때문에 생겨난 압력이라고 평가하는데 여기에다 이른바 팩 저널리즘의 영향까지 미치게 될 경우 모든 신문기사가 천편일률로 호를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다(Bennet, 1996, 123~131쪽).

실제로 신문시장의 경쟁상황은 신문 다양성 증진과 무관하다는 연구결과는 많다. 초기 연구에 해당하는 화이트(White, 1950)의 연구나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이루어진 위버와 몰린스(Weaver & Mullins, 1975)의 연구, 맥콤스(McCombs, 1987)의 연구가 그런 사례다. 다양한 신문이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후일 브리드(Breed, 1995)에 의해 매체간 의제 설정(inter-media agenda setting)으로 개념화된 이 계열의 연구는 신문 간 유사성의 배경으로 통신사의 역할

에 주목하면서 통신사와 신문사의 기사선정 비율이나 뉴스밸류 부여 기준이 동일한 내용을 다각도로 밝히고 있다.

신문의 내용이 AP나 UPI 같은 통신사들의 기사 비중에 따라 중요도가 정해지고 장르가 설정되는 데에는 통신기사에 대한 자사 신문 편집진의 신뢰도 영향을 미치지만 출입처를 같이하거나 특정 주제나 특정 사건의 취재에 연루되어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집단 심리도 압력의 한 요소가 된다. 1972년 미국 대선 당시 대통령후보의 유세 버스에 오른 기자들을 관찰하면서 이들의 보도 행태를 이른바 ‘팩(pack) 저널리즘’이라 이름 붙인 크로우스(Crouse, 1973)의 연구가 그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함께 여러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협동하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뻘뻘한 마감시간과 타사 기사들의 보도와 유의미한 차이에 대한 편집장의 의문 제기가 가하는 압력이 있게 되면 판에 박힌 보도 포맷을 그대로 따르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가판 연구가 전혀 없는 서구와는 달리 가판이 신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저널리즘 가치에 미치는 의미가 큰 한국에서는 그나마 본격적인 연구를 몇 편 만날 수 있다.

가판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신문의 판매량 중에서 가두판매량의 정도는 얼마나 되며 판매되는 방식과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동황(2001)의 연구가 그 하나의 사례에 해당한다. 그 동안 배일에 가려졌던 가판 시장의 판매량, 마진율 등이 이를 통해 밝혀졌으며, 지나치게 낮은 총판 가격을 개선하여 신문 경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의 대폭 축소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동황의 연구가 가판이 신문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라면 한국언론재단의 보고서(1999)와 이 내용의 일부분을 논문형식으로 정리한 황용석(2001)의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서구의 신문 표준화와 상호 모방 관행을 한국 신문 가판에 이론적으로 적용시켜 본 사례이다. 가판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신문들이 얼마나 서로 닮아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한국 신문의 무개성화의 원인을 여기에서 드러내려고 했다. 연구결과 한국 신문들은 외국의 신문과 유사하게 치열한 경쟁에서도 다양성을 창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판으로부터 종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개판과정을 통해 한국 신문이 개성 없는 유사한 보도를 하게 된다고 했다.

앞의 두 연구가 언론사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종혁(2002)의 연구는 기업의 홍보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기업의 언론홍보 실무자들이 가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하여 얻은 결론은 가판에 난 기사를 고치거나 빼기 위해 하는 홍보업무는 기업이 하는 일반적이거나 홍보활동과 비교해 비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홍보경력이 더 많고 홍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집단, 또는 가판 근무를 더 많이 경험한 집단이 가판근무의 효율성과 윤리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밖에도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기자의 현장보고(정운현, 2001), 언론 비평 저널리즘 종사자의 현장 분석기사(이영태, 2001; 조현호, 2001)가 있는데 가판을 통한 무개성화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중앙일보》 가판 폐지의 실험이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점치는 내용이 있다. 그런가 하면 시민단체의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가판 유지가 신문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보다 신문 상호간의 모방으로 인한 무개성화 또는 취재원과의 타협을 통한 기사변질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밝힌 정연구(2002)와 주동황의 연구가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기존문헌 검토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판은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가정적인 답을 내릴 수 있다. 신문 가판이 신문의 영업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독자의 복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다. 즉, 빈번한 개판 과정을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기사가 정치, 경제 권력자(집단)의 압력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많으며, 초판에서 종판으로 가는 과정에서 신문이 서로 닮아 가되 큰 신문을 쫓아갈 가능성이 커 신문의 권력

감시 기능에 문제가 생김은 물론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흐름이 차단돼 건강한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3. 연구방법

1) 하부 연구문제의 설정

앞서 1장의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검증이 가능한 현실차원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각 연구문제별로 보다 구체적인 변인을 적시하는 하부 연구문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1>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관련 문헌을 찾을 수 없는 관계로 신문의 판매를 통한 영업 이익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을 하부 문제로 설정했다. <연구문제 2>는 기존 연구 문헌을 통하여 발견된 내용을 주요 하부 연구문제로 설정했다. 가판 운영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신문이 보도할 뉴스를 고르는데 있어 자기 규제를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문제와 큰 매체와 작은 매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모방으로 빚어지는 표준화 경향이 권력 감시와 다양한 여론 조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본 가치를 해치는 것이라 보고 이를 주요 연구문제로 설정했다. 가판과 (서울)시내 배달판 사이의 기사 변동의 양과 내용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사 대상 자료의 분석결과를 일괄한 다음, 이러한 내용을 권력과 표준화와 결부하여 그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표준화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기존문헌 검토를 통해 살펴 본 황용석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모방특성과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모방특성의 결과를 비교하는 하부문제를 한 가지 더 설정하고자 했다. 황용석의 연구에서 채택한 분석유목을 상당부분 똑 같이 채택하여 두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첫째는 황용석의 연구는 <<중앙일보>>가 가판을 폐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된 연구인 반면 이

연구는 《중앙일보》가 가판을 폐지하고 난 이후의 신문내용을 분석하는 것이어서 한 신문의 가판 폐지가 다른 신문의 가판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두 연구가 분석하는 대상 시기의 상황적 특성이 다른 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황용석의 연구가 며칠 간 연구가 지속될 만큼 뚜렷이 큰 사건이 없는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 반면, 이 연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최규선 씨의 비리와 이를 은폐하려 한 경찰 고위간부의 해외 도피 등이 기사로 등장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 ‘여·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중국항공기의 김해공사 추락’ 사건이 분석 대상이 된 시기의 신문지면을 지속적으로 장식하는 비교적 역동적인 시기를 대상으로 해서 두 시기의 차이 혹은 공통점의 발견을 통해 한국 신문의 판갈이 특성을 보다 보편성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설정된 연구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가판 자체가 신문의 영업 이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가?

- 1-1. 가판의 판매가와 판매량은 영업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가?
- 1-2. 가판 제작은 전국 배달망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가?

연구문제 2: 가판 운영이 양질의 기사 제공에 도움이 되는가?

- 2-1. 가판에서 배달판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사 변화의 정도는 어떠한가?
- 2-2. 가판과 배달판 사이에서 발생한 기사 변화의 면종별, 주제별, 중요도별 특성은 어떠한가?
- 2-3. 가판과 배달판 사이에서 발생한 기사 변화의 권력 관련 특성은 어떠한가?
- 2-4. 가판과 배달판 사이에서 발생한 기사 변화의 모방 특성은 어떠한가?

2-5. 《중앙일보》의 가판 폐지 이전과 이후 신문별 모방 특성
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2) 분석 대상 자료의 선정과 수집

두 가지 기준에 비취 현재의 한국 신문 가판 운영 관행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증적 자료가 필요하겠다. 첫 번째 연구문제 즉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 대상 자료는 전국지로 분류되는 10개의 중앙종합일간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면 인터뷰 결과이다. 가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종합일간지 외에 경제지와 전문지도 포함될 수 있지만 독자의 보편성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 측면에서 다양한 여론의 형성과 권력 감시에 있어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문이 중앙 종합일간지라 판단되어 중앙 종합일간지로 한정했다. 여기에는 조간과 석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켰는데 중앙 종합일간지 형태의 전국지가 취하고 있는 개판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조간신문이 취하고 있는 개판 시스템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 자료의 수집은 자사 경영 정보에 대한 한국 신문사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감안하여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하여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인터뷰의 궁극적인 대상자는 신문 경영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신문 개판 시스템을 자세히 아는 인사가 되겠지만 서면 인터뷰 응답지에 답을 작성해서 보내 준 응답자는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영 부문 임원급 인사로부터 편집국 차장급 이상 기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조사는 2002년 4월 중, 하순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대상 자료는 가판 즉 신문사에서 만들어 내는 첫 신문의 내용과 시내 배달 판이라고 하는 최종판이다. 그날그날 기사 마감을 하여 처음 만들어 낸 신문과 최종 신문의 내용을 일일이 비교하여 중간에 바뀐 기사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분석

함으로써 개판 과정 중에 변화된 기사 내용이 정말 독자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 대상 신문으로는 중앙 종합일간지 8개를 골랐다. 10개의 중앙 종합일간지 가운데 조간으로 발행되는 8개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대한매일》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만 골라 초판과 종판 신문을 구해 일일이 기사를 대조해보았다. 석간 신문의 경우도 분석대상 신문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여론 주도 세력으로 분류되는 조간신문과 비교가 불가능한데다, 신문 8개의 조판과 종판기사 일주일치를 모두 꼼꼼히 읽어야 하는 방대한 작업량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했다. 가판보다 몇 시간 먼저 나오는 석간신문이 조간신문의 뉴스 밸류를 판단하는 데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한 연구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제외했다.

조사 대상 시기는 2002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정했다. 한 가지 이유가 이 시기를 선정하게 한 원인이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황용석 연구와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 시기가 그 이유이다. 연구를 결심한 이후 2002년 4월 중순의 시기는 황용석 연구의 분석대상 시기와 뚜렷이 구분될 정도의 역동적인 시기라는 판단이 들어 이를 선택했다. 김해공항의 중국 여객기 추락사건을 기사의 개판과 관련하여 충분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이 내용이 분석대상 시기 전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기를 선정했다. 며칠이나 몇십 일이 아니라 한 주일을 선택한 이유는 신문 편집이 한 주를 기본 단위로 하여 하나의 주기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문 변화의 사이클을 온전히 반영하되 최소한의 시기를 선정하고자 하는 뜻에서였다. 제목과 내용이 바뀌거나, 기사가 사라지거나 없던 기사가 생기거나 이면에서 저면으로 옮겨가거나, 기사의 제목과 내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편집 디자인상의 기술적인 변화를 한 기사가 모두 변화된 기사로서 <연구문제 2>의 분석 대상 자료가 되었다.

황용석 연구와 비교를 위한 자료로는 황용석 연구의 SPSS 데이터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자의 양해를 얻어 본래 연구(황용석, 2000)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분석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시행하는 방식으로 비교를 시도했다.

3) 분석항목과 방법

분석항목과 방법에 대한 프로토콜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판’에 대한 개념정의이다. 《중앙일보》가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판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필요 없었겠지만 《중앙일보》가 분석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판과 초판이 동일한 내용이 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중앙일보》가 가두 판매용으로 한정하여 초판을 인쇄하지 않아 가판과 초판이 동일한 내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하 분석방법과 분석결과를 논의하는 장에서 가두 한정 판매가 아니라 최초 인쇄판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가판이라는 말 대신 초판이라는 말을 쓰도록 한다. 여기서 초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날짜의 신문 인쇄 본 가운데 가장 먼저 찍어내는 판을 지칭하는 말이다. 《중앙일보》를 제외한 다른 조간신문들이 가판으로 찍어내는 모든 신문이 여기에 포함되며, 《중앙일보》의 경우는 다른 신문의 두 번째 판이 나오는 시간 즈음에 처음으로 인쇄를 한 판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의 비교대상이 되는 이른바 (서울) 시내 배달판 혹은 본지라고 불리는 최종판은 종판으로 이름 붙인다. 배달판이나 본지라는 말이 업계의 관행 상으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용어이지만 초판과 시간 상 정 반대에 있는 판이라는 사실을 별다른 추가 설명이 없이 비 업계 사람에게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연구문제별 분석항목과 측정값이 어떻게 설정되고 정의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본다.

가판 운영과 신문의 영업이익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문제 1>의 분석항목은 크게 네 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사별 개판 시스템,

신문제작 원가와 가판 총판 가격, 판매량이 그것이다.

가판 운영과 신문 기사 품질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문제 2>의 분석항목은 가판과 초판의 내용분석을 하기 위한 13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신문명, 면종, 기사분야, 기사의 중요도, 기사의 변화 여부, 변화된 기사의 권력관련성, 변화된 기사의 방향, 중요도 변화, 기사량 변화, 지면 위치 변화, 제목변화, 내용변화, 기사 삽입 및 내용 변화 시 모방신문이 그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는 <연구문제 1>의 분석항목과 달리 내용분석을 해야 하는 <연구문제 2>의 경우, 변인(variable)과 측정 값(value)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신뢰도 검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자명한 내용이어서 별도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은 변인과 항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분석항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내용만 정의를 하는 방식으로 변인과 측정값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문명’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처럼 8개의 조건 중앙 종합일간지가 측정값으로 채택된 변인이다. ‘면종’은 신문지면 상단에 표시된 지면 분류를 측정값으로 채택한 변인이다. 1면, 1면 외 종합면, 정치면, 오피니언면, 경제면, 사회면, 스포츠면(섹션)이 측정값의 내용이다.

‘기사분야’는 기사 속에 등장하는 행위 주체가 아니라 그들이 다루고 있는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변인으로서 흔히 신문사에서 지면 분류를 통해 구분하고 있는 내용이 측정값으로 채택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교육, 기상/환경/보건/과학, 남북/통일, 국가 간 분쟁과 기타가 그것이다. 하나의 기사가 앞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과 뒤의 기상/환경/보건/과학, 남북/통일, 국가 간 분쟁과 같은 특수한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뒤의 특수한 내용으로 분류하도록 정의했다. 뒤의 특수한 내용을 측정값에 포함시킨 데는 황용석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항목의 설정이 불가피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으나 분석대상 신문에 대한 예비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측정값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나름대로 주제변화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 것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

‘기사의 중요도’는 신문사에서 이른바 제목의 크기와 기사의 위치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톱, 부톱, 4/3/2/1단과 박스기사, 사진기사가 측정값으로 채택되었다. 톱의 경우 기사 상단의 가장 큰 기사로 부톱의 경우 기사 상단에 위치한 기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기사로 정의를 했으며 단수는 제목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명한 내용 이어서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았다.

‘기사의 변화 여부’는 초판 기사의 변화 여부와 변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으로 변화 없음, 초판기사 삭제, 종판에 새로 삽입, 초판-종판 차이, 편집상 변화가 그 측정값이다. 여기서 ‘변화 없음’은 제목과 기사의 내용, 기사의 소재 면이나 면내 위치에 있어서 일체의 변동이 없는 기사를 이르는 값이며, ‘초판기사 삭제’는 초판에는 있었으나 종판에는 없어진 기사를 이르는 값이고 ‘종판에 새로 삽입’은 초판에는 없었으나 종판에는 들어가 있는 기사를, ‘초판-종판 차이’는 초판과 종판 기사 사이에 중요도, 기사량, 지면 위치, 제목, 내용상에 변화가 있는 기사를, ‘편집상 변화’는 ‘초판-종판 차이’라는 측정값이 담고 있는 영역에는 일체의 변화도 없이 편집디자인 상의 변화만을 수반한 기사를 지칭하는 값이다.

‘변화된 기사의 권력 관련성’은 ‘기사의 변화 여부’ 변인의 측정 값 가운데 내용이나 제목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초판기사 삭제’ ‘종판에 새로 삽입’ ‘초판-종판 차이’에 해당하는 기사가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변인이다. 측정값으로는 정치권, 경제계, 국가기관, 둘 이상이 있다. 정치권의 경우 국회, 국회의원,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계의 경우 30대그룹 기업과 그 소유주 및 상무급 이상의 고위 임원으로, 국가기관은 중앙부처 행정부와 소속 국장급 이상의 관료로 정의했으며 둘 이상은 이들 측정값이 둘 이상 나오는 기사로 정의했다.

‘변화된 기사의 방향’은 초판에서 변화가 있는 기사 가운데 그 내용이 취재원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 게재하기를 원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볼 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불명료한지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가급적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사라고 판단되는 기사인 경우를 부정적인 기사

로, 가급적 보도되기를 바라는 기사를 긍정적인 기사로 이도 저도 아닌 기사를 불명료한 기사로 정의했다.

‘초판-중판 차이’에 해당하는 기사 가운데 그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 보기 위한 변인으로는 ‘중요도 변화’가 있다. 이는 단수나 지면을 고려할 때 중요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인인데 앞서 설명한 ‘기사의 중요도’의 측정값을 참고하여 그 값이 일반 단수에서 부툼, 툼으로 올라가면 중요도 증가, 감소하면 중요도 감소,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변화 없음으로 측정값을 정했다.

‘중판에 새로 삽입’한 기사와 ‘초판-중판 변화에 해당하는 기사가 다른 신문을 모방했는지 여부에 판정은 다른 신문에 있는 내용이 이 신문에 도입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중판에 새로 삽입된 기사의 경우, 모방은 분석 대상 중판 기사가 다른 신문의 초판의 기사를 일부라도 그대로 담고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초판-중판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기사의 경우, 모방은 분석 대상 신문의 중판의 제목과 내용변화가 다른 신문 초판에 있는 내용을 일부라도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진행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항목을 적용하여 실제로 코딩하는 작업은 하나의 기사를 기본 분석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나의 제목에 두 명의 기자가 쓴 기사가 대비되는 형식으로 편집된 내용은 분리하여 두 개의 기사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코딩은 연 사흘에 걸치는 교육 및 예비조사를 통해 유목을 충분히 익힌 언론정보학과 3~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10명의 코더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코딩을 하기 전에 두 명의 코더들이 실시한 코딩결과를 바탕으로 코더 간 일치도 계수(intercoder reliability)를 검사한 결과 모두 95%를 넘었다. 코딩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통계 방법은 교차분석이 사용되었다.

4. 분석 결과

앞서 제시한 자료 분석 방법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분석결과는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연구문제 1>과 그 하부 <연구문제>, 이어서 <연구문제 2>와 그 하부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가판 운영과 신문 영업 이익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결과

(1) 신문가판의 판매가격 및 판매량과 영업이익

조사 대상이 된 신문 가운데 2002년 4월 현재 주중 60면을 발행하는 한 신문의 경우 신문 한 부당 잉크와 종이 값만 해서 부수 당 250원(44면의 경우 200원)이 들어간다. 그런 데 반해 이 신문의 가판 총판가격은 188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판 형태로 신문을 내다 팔아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얻기 는커녕 손해를 입는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가판 판매량 또한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문의 경우, 전체 인쇄량의 0.5%를 초판에서 찍어낸다고 한다. 하루 인쇄부수가 1~2만 부 사이가 되는 셈인데 판촉을 위한 무가지 등의 이유로 인쇄부수가 판매 부수의 최고 2배까지 간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판매부수는 최대 로 잡는다 해도 1만 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광고 매출을 감안하더라도 1만 부의 독자 혹은 2만 부의 독자로 인해 추가로 생겨날 광고 수주량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판 자체로는 작은 수익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바꾸어 말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장사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판을 운영하여 매출이익을 올리겠다는 말은 처음 부터 가능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겠다.

(2) 전국 배달망 유지와 가판 제도 운영의 상관성

수집된 자료에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볼 때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가판은 가두 판매용 제작판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배달/판매되는

배달관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시험용 제작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조사대상이 된 8개를 포함하는 10개 중앙 종합 일간지가 초판부터 종판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 인쇄를 해서 어디에 배포하고 있는가를 정리한 <표 1>의 내용을 볼 때, 원거리 배달과 가판 제작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어

<표 1> 신문별 개판 현황

ㄱ 신문			ㄴ 신문		
판명/인쇄시간	배포지역	인쇄장소	판명/강판시간	배포지역	인쇄장소
10판 18:00	제주, 강원	본사	1판 10:50	서울 및 수도권	서울
20판 22:30	중부	본사/김해	5판 18:00	수도권 외 전국지방	서울/대구
30판 23:00	수도권, 영호남	본사/김해			
40판 01:00	서울	본사			
45판 03:30	서울	본사			
ㄷ 신문			ㄹ 신문		
판명/인쇄시간	배포지역	인쇄장소	판명/인쇄시간	배포지역	인쇄장소
5판 18:00	가판, 제주, 강원, 호남일부	본사	5판 18:00	서울시내 가판	본사
10판 22:30	호남, 충청, 경북 일부	본사/대구	40판 22:15	강원, 전남북, 충청, 경남북외곽 (대쇄)	본사/대구/광주
15판 24:00	수도권, 대구, 부산	본사/대구	41판 23:15	경기, 충청, 울산, 경남 대도시	본사/대구
20판 01:00	서울, 대구, 부산	본사/대구	45판 00:30	서울, 수도권, 직할시, 경북대도시	본사/광주/제주 (대쇄)/대구/부산
20.5판 02:30	서울	본사	50판 01:00-03:00	서울(속보발생시만)	서울
40판 04:00	서울 중심부	본사			
ㅁ 신문			ㅂ 신문		
판명/강판시간	배포지역	인쇄장소	판명/인쇄시간	배포지역	인쇄장소
3판 11:00	수도권, 전국	본사/김해	10판 18:00	경남북, 전남북, 광주, 부산, 제주	본사
7판 12:00	수도권	본사	20판 22:00	강릉, 삼척, 청, 대전	중본사
			40판 23:20	경기, 인천	본사
			45판 01:00	서울 외곽	본사
			50판 02:30	서울 강남	본사
			55판 03:00	서울 4대문지역	본사

ㄱ 신문			ㅇ 신문		
판명/인쇄시간	배포지역	인쇄장소	판명/인쇄시간	배포지역	인쇄장소
10-20판	서울시내 가판, 강원동부	본사/지역 동시인쇄	10판 미인쇄	인쇄지역 외곽	본사/강남/안산/대구/부산/광주/제주(대체)
40판	강원서부, 전북, 충청		40판 21:00	으로부터 가까	
41판	경기북부, 충청(대전, 청주), 울산		41판 22:00	운 지역으로	
42판	경기남부, 서울일부, 경남북, 제주, 전남		42판 23:30	분할	
43판	서울 일부		43판 00:30		
			50판(둘판)속보시	4대문안과 가판	
				만	
ㄴ 신문			ㄷ 신문		
판명/인쇄시간	배포지역	인쇄장소	판명/인쇄시간	배포지역	인쇄장소
1판 17:50	저녁 가판	본사	10판 17:00전후	제주, 경남 일부	본사
2판 18:50	호남, 제주	본사	30판 22:00전후	충청, 강원, 호남	본사
3판 21:30	충청, 강원	본사	41판 23:00전후	남	본사/창원
4판 22:40	대전, 제천, 원주, 춘천, 영남	본사/영남지역 현지 대체	42판 24:00전후	충청 이북, 경기, 경남, 부산	본사
5판 23:10	경기, 인천	본사		서울, 경기 등	
6판 00:30	서울 외곽	본사			
7판 01:40	서울 도심	본사			
8판 03:10	아침 가판	본사			

* 조간신문의 경우, 강판시간과 인쇄시작 시간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석간의 경우, 판을 다 찬 시간인 강판시간으로부터 50여 분 뒤에 인쇄를 하기도 해 특별히 이를 강판시간으로 표현했다.

** 조사과정에서 지방 분공장과 대체에 대해 특별히 밝히고자 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보인다.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회사에 따라서는 전국 동시 인쇄망을 갖추고 있어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배달하기 위한 판을 미리 인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배달할 신문을 그 전날 저녁에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내보내고 있다. 이 경우 가판 제도를 지지하는 일부 언론인들이 주장하듯이 가판이란 원거리 배달용 인쇄판의 일부를 빼내 서울 시내에 유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처음부터 시내 저녁 가판을 매우 의도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많은 신문사가 전국 동시 인쇄를 대부분 하고 있다는 점과 전국 방방곡곡

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발달한 교통망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어느 지역도 배포시간 12시간 전쯤 신문을 찍어내야 할 이유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 동시 인쇄망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가판이 문제가 되어 모두 다 폐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외딴 곳으로의 배달을 위해 초판을 12시간 전쯤 미리 찍어내기는 하되 지금처럼 시내에 유포되지 않게만 하는 것이 가판으로 빚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라는 언론인 일부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가판과 신문 기사 품질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결과

(1) 초판과 종판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사 변화의 정도와 양

<표 2>의 내용은 초판에 실린 기사가 신문별로 얼마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일괄할 수 있는 분석결과이다. 8개 신문을 하나로 놓고 보면 변화 없는 경우가 62.1%로서 가장 많고 초판-종판 사이에 이리저리한 변화를 한 경우가 20.0%로 다음 순서이며 초판 삭제기사는 12.5%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신문이 기사 전체의 모습과 순서상으로는 일치하나 몇 개의 신문에서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른 신문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는 《중앙일보》로서 가판을 인쇄하지 않고 인쇄 초판을 다른 신문에 비해 3시간 가량 늦게 발행하는 조치가 원인이 되어 85.9%(디자인상 변화까지 합치면 87.5%)에 해당하는 기사가 종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장 많은 변화를 한 신문은 《한겨레》 《한국일보》 《조선일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기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은 초판에서 삭제된 기사와 종판에서 삽입된 기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분석결과이다.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모습을 확인할

<표 2> 신문별 초판 변화 여부 및 내용

항 목	초판 변화 여부				합 계
	변화 없음	초판기사 삭제	초판-중판 변화	편집디자인 변화	
경향신문	366 (68.2)	72 (13.4)	79 (14.7)	20 (3.7)	537 (100.0)
동아일보	354 (59.4)	92 (15.4)	114 (19.1)	36 (6.0)	596 (100.0)
대한매일	314 (58.8)	75 (14.0)	118 (22.1)	27 (5.1)	534 (100.0)
세계일보	357 (60.7)	80 (13.6)	119 (20.2)	32 (5.4)	588 (100.0)
조선일보	303 (56.5)	68 (12.7)	134 (25.0)	31 (5.8)	536 (100.0)
중앙일보	475 (85.9)	15 (2.7)	54 (9.8)	9 (1.6)	553 (100.0)
한겨레	267 (51.3)	73 (14.0)	134 (25.8)	46 (8.8)	520 (100.0)
한국일보	347 (55.9)	84 (13.5)	146 (23.5)	44 (7.1)	621 (100.0)
합 계	2783 (62.1)	559 (12.5)	898 (20.0)	245 (5.5)	4485 (100.0)

$X^2 = 211.190$, $df = 21$, $p = .000$, () 안은 %.

수 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다른 6개의 신문과는 달리 초판에 삭제된 기사의 수보다 많은 수의 기사를 중판에 삽입시켰다. 다른 6개의 신문이 빼버린 기사보다 적은 수의 기사를 채운 것으로 미루어 비중이 적은 기사를 희생하여 비중이 커 기사량이 많아지는 기사를 채우는 방식으로 기사를 큼직큼직하고 시원하게 편집해가는 모양《대한매일》이 대표적)을 띠고 있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이 두 신문은 기사 가치가 적은 기사와 많은 기사를 바꾸는 것에 못지않게 최종판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템을 담아 구색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양상이라 할 수 있겠다.

<표 3> 신문별 삭제 및 삽입기사 비율

항 목	삭제/삽입여부		합 계
	초판기사 삭제	종판에 새로 삽입	
경향신문	72 (51.8)	67 (48.2)	139 (100.0)
동아일보	92 (56.4)	71 (43.6)	163 (100.0)
대한매일	75 (60.0)	50 (40.0)	125 (100.0)
세계일보	81 (51.3)	77 (48.7)	158 (100.0)
조선일보	69 (46.0)	81 (54.0)	150 (100.0)
중앙일보	15 (51.7)	14 (48.3)	29 (100.0)
한겨레	73 (51.4)	69 (48.6)	142 (100.0)
한국일보	85 (47.2)	95 (52.8)	180 (100.0)
합 계	562 (51.7)	524 (48.3)	1086 (100.0)

$\chi^2 = 8.330$, $df=7$, $p=.304$, () 안은 %.

(2) 기사 변화의 면종별, 주제별, 중요도별 특성

초판과 종판 사이에서 변화되는 기사들이 어떤 면에 위치해 있는 어떤 주제와 중요도를 지닌 기사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초판에 삭제된 기사와 종판에 삽입된 기사를 모두 합쳐 분모로 계산한 다음 변화된 기사의 양이 면종별로 주제별로, 중요도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면종별로는 1면의 변화가 가장 많음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부각된다. 그런가 하면 오피니언면과 경제면의 변화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피니언의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신문에서 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면의 경우, 초판 기사를 삭제하고 새로 기사를 싣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만 낱양스와 디테일의 차이를 위해 제목과 내용, 위치에 자주 변화를 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신문 전체를 일정하게 잘 대변한다는 전제 하에 1면으로 신문의 경향을 파악하려고 할 경우, 어느 판을 분석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정도라고 해야 할 만큼 70%에 가까운 기사가 변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면 외 종합면과 사회면도 기사의 삭제/삽입보다 여러 가지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경제면과 오피니언면에 비해 1면과 가까운 모습을 지니는 특성을 지닌 면이라 하겠다.

<표 4> 면종별 초판 변화 여부 및 내용

항 목	초판 변화 여부					합 계
	변화 없음	초판기사 삭제	종판에 새로 삽입	초판-종판 변화	편집디자인 변화	
1면	92 (29.1)	25 (7.9)	30 (9.5)	146 (46.2)	23 (7.3)	316 (100.0)
1면 외 종합	580 (46.9)	148 (12.0)	143 (11.6)	292 (23.6)	73 (5.9)	1236 (100.0)
정치면	85 (44.3)	33 (17.2)	24 (12.5)	43 (22.4)	7 (3.6)	192 (100.0)
오피니언면	545 (97.0)	4 (0.7)	7 (1.2)	5 (0.9)	1 (0.2)	562 (100.0)
경제면	698 (79.5)	44 (5.0)	49 (5.6)	56 (6.4)	31 (3.5)	878 (100.0)
사회면	446 (41.5)	172 (16.0)	142 (13.2)	256 (23.8)	58 (5.4)	1074 (100.0)
스포츠면	343 (44.8)	136 (17.8)	129 (16.8)	106 (13.8)	52 (6.8)	766 (100.0)
합 계	2789 (55.5)	562 (11.2)	524 (10.4)	904 (18.0)	245 (4.9)	5024 (100.0)

$\chi^2 = 1022.753$, $df = 24$, $p = .000$, () 안은 %.

스포츠면의 삭제/삽입 기사 비율이 부분적인 변화를 한 기사의 비율보다 많은 점도 특기할 만한 내용이다. 정치면의 경우 부분적으로 변한 기사 비율이 삭제/삽입 기사의 비율보다 높지는 않지만 경제면과는 달리 삭제 기사의 비율이 높은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기사 분야별로 초판 중판 사이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는 면종별 분석결과와 유사한 내용이다. 정치와 사회를 주제로 한 기사가 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경제, 문화, 교육, 국가 간 분쟁 분야의 기사는 변화 없이 그냥 있는 기사의 비율이 주종이지

<표 5> 기사분야별 초판 변화 여부 및 내용

항 목	초판 변화 여부					합 계
	변화 없음	초판기사 삭제	중판에 새로 삽입	초판-중판 변화	편집디자인 변화	
정치 (행정포함)	872 (50.3)	172 (9.9)	180 (10.4)	414 (23.9)	95 (5.5)	1733 (100.0)
경제	719 (77.7)	42 (4.5)	54 (5.8)	77 (8.3)	33 (3.6)	925 (100.0)
사회	653 (50.6)	167 (12.9)	136 (10.5)	278 (21.5)	57 (4.4)	1291 (100.0)
문화	47 (88.7)	1 (1.9)	3 (5.7)	2 (3.8)	0 (0.0)	53 (100.0)
스포츠	370 (46.8)	134 (17.0)	131 (16.6)	104 (13.2)	51 (6.5)	790 (100.0)
교육	26 (74.3)	5 (14.3)	1 (2.9)	2 (5.7)	1 (2.9)	35 (100.0)
기상/환경/ 보건/과학	43 (44.8)	21 (21.9)	10 (10.4)	18 (18.8)	4 (4.2)	96 (100.0)
남북/통일	24 (45.3)	15 (28.3)	5 (9.4)	6 (11.3)	3 (5.7)	53 (100.0)
국가 간 분쟁	31 (70.5)	5 (11.4)	4 (9.1)	3 (6.8)	1 (2.3)	44 (100.0)
기타	4 (10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합 계	2789 (55.5)	562 (11.2)	524 (10.4)	904 (18.0)	245 (4.9)	5024 (100.0)

$X^2 = 399.348$, $df = 36$, $p = .000$, () 안은 %.

지만 정치, 사회, 스포츠, 기상/보건/환경/과학, 남북통일 분야의 기사는 변화를 하는 비율과 그렇지 않은 비율이 반반 되어 대조를 이룬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기상/보건/환경/과학 기사와 남북통일 분야의 기사의 삭제율이 삽입률보다 높은 반면 정치경제 분야의 삽입률이 삭제율보다 높아 초판을 만들 때 의지와는 달리 종판으로 갈수록 기상/.../과학 분야와 남북통일 분야 기사를 죽여서 생긴 공간을 정치경제 분야에 할애해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스포츠 분야는 기사를 조금씩 고치는 것보다 초판 마감 이후 결정되는 경기결과에 따라 기사가 통제로 바뀌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중요한 특징으로 기록될 만한 내용이다.

기사 변화의 중요도별 특징(<표 6>)으로는 4단 기사를 중심으로 위, 아

<표 6> 기사의 중요도별 초판 변화 여부 및 내용

항 목	초판 변화 여부					합 계
	변화 없음	초판기사 삭제	종판에 새로 삽입	초판-종판 변화	편집디자인 변화	
톱	332 (46.6)	63 (8.8)	78 (11.0)	209 (29.4)	30 (4.2)	712 (100.0)
부톱	337 (52.2)	72 (11.2)	63 (9.8)	154 (23.9)	19 (2.9)	645 (100.0)
4단	18 (64.3)	2 (7.1)	3 (10.7)	4 (14.3)	1 (3.6)	28 (100.0)
3단	129 (45.1)	27 (9.4)	34 (11.9)	73 (25.5)	23 (8.0)	286 (100.0)
2단	331 (43.2)	97 (12.6)	84 (11.0)	209 (27.2)	46 (6.0)	767 (100.0)
1단	646 (53.3)	196 (16.2)	166 (13.7)	150 (12.4)	54 (4.5)	1212 (100.0)
박스	824 (75.5)	58 (5.3)	67 (6.1)	91 (8.3)	51 (4.7)	1091 (100.0)
사진	167 (60.1)	47 (16.9)	29 (10.4)	14 (5.0)	21 (7.6)	278 (100.0)
합 계	2784 (55.5)	562 (11.2)	524 (10.4)	904 (18.0)	245 (4.9)	5019 (100.0)

$X^2 = 457.740$, $df = 28$, $p = .000$, () 안은 %.

래가 닳은꼴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들 수 있겠다. 4단 기사의 경우, 초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사로 정해질 때,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보도한 기사인 만큼 무 변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편집방향 상 초판에서 크게 부각시킨 톱, 부톱 기사의 경우에는 삭제는 쉽사리 하지 않는 반면 ‘초판-종판 변화’ 기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이 높긴 하지만 단수가 적은 기사(특히 1단)와 사진기사의 경우는 단수가 큰 기사에 비해 삭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정보다는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3) 기사 변화의 권력 관련 특성

<표 7> <표 8> <표 9>에 나타난 변화된 기사의 권력 관련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는 초판에서 변화되는 기사 가운데서 정치권력과 국가기관에 대한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달리 표현하자면 특히 정치권력에 대해 기사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7>의 내용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초판에서 삭제된 기사 가운데 정치권에 관련된 기사의 비율이 20.0%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표 7> 초판 기사 변화 내용별 기사의 권력 관련 내용

항 목	기사내용의 권력 관련성					합 계
	정치권	경제계	국가기관	상기 2이상 포함	비해당	
초판기사 삭제	112 (20.0)	19 (3.4)	82 (14.7)	13 (2.3)	333 (59.6)	559 (100.0)
초판-종판 변화	218 (24.3)	37 (4.1)	154 (17.1)	54 (6.0)	435 (48.4)	898 (100.0)
합 계	330 (22.6)	56 (3.8)	236 (16.2)	67 (4.6)	768 (52.7)	1457 (100.0)

$X^2=22.796$, $df=4$, $p=.000$, () 안은 %.

제목이 일부 변화되는 비율도 전체 변화 기사 가운데 24.3%에 이를 만큼 많은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가 기관에 대한 기사의 비율도 적지 않아 이들을 합칠 경우 삭제 비율은 34%로서 삭제된 기사 셋 중의 하나가 정치 내지 정부 권력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언론의 권력 감시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생각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 대목이다.

권력 관련 특성의 두 번째 내용은 초판에 부정적인 내용으로 실린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에 비해 삭제되는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변화의 비율도 초판에 부정적으로 실린 기사가 긍정적으로 실린 기사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초판과 종판 사이에 제목이나 내용, 위치 등에서 부분적으로 변화한 기사 가운데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7.0%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라는 사실은 초판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의 경우 종판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8> 초판 기사 변화 내용별 권력관련 기사의 방향

항 목	기사의 방향			합 계
	부정적	긍정적	불명료	
초판기사 삭제	183 (32.7)	144 (25.8)	232 (41.5)	559 (100.0)
초판-종판 변화	422 (47.0)	194 (21.6)	282 (31.4)	898 (100.0)
합 계	605 (41.5)	338 (23.2)	514 (35.3)	1457 (100.0)

$X^2 = 29.391$, $df = 2$, $p = .000$, () 안은 %.

그렇다면 종판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표 9>의 내용이 이를 설명해준다. 바로 권력 관련기사의 변화가 지니는 세 번째 특성인 순화다. 초판에서 다소 강하게 표현된 내용이 종판에서는 다소 순화된 형태로 바뀔 수 있음을 <표 9>는 시사하고 있다. 권력 관련성

과 그 방향을 상호 교차하여 측정값을 새롭게 만들어 각각의 측정값이 초판에서 종판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도 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를 분석한 내용이다. 권력의 어떤 것이든 간에 이를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의 경우 종판에 가서 중요도가 감소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 훨씬 높은 특성을 볼 수 있다. 초판에서 경제계를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의 45.5%가 종판에서 기사의 중요도를 낮추었는가 하면 국가기관을 초판에서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의 39.2%가 종판에서 중요도를 낮추었다. 이러한 경향은 긍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긍정과 부정이 모두 기사의 중요도를 낮춰 결과적으로는 초판에서 긍정과 부정이 다소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다가 종판으로 가

<표 9> 권력관계의 방향별 중요도 변화

항 목	초/종판 사이의 중요도 변화			합 계
	변화 없음	중요도 증가	중요도 감소	
부정-정치권	63 (52.1)	29 (24.0)	29 (24.0)	121 (100.0)
부정-경제계	5 (45.5)	1 (9.1)	5 (45.5)	11 (100.0)
부정-국가기관	32 (40.5)	16 (20.3)	31 (39.2)	79 (100.0)
부정-둘 이상	25 (54.3)	10 (21.7)	11 (23.9)	46 (100.0)
긍정-정치권	20 (66.7)	9 (30.0)	1 (3.3)	30 (100.0)
긍정-경제계	8 (42.1)	3 (15.8)	8 (42.1)	19 (100.0)
긍정-국가기관	17 (38.6)	9 (20.5)	18 (40.9)	44 (100.0)
긍정-둘 이상	2 (33.3)	0 (0.0)	4 (66.7)	6 (100.0)
합 계	172 (48.3)	77 (21.6)	107 (30.1)	356 (100.0)

$X^2 = 26.462$, $df = 14$, $p = .023$, () 안은 %.

면서는 중앙으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기사의 내용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기사 변화의 모방 특성

종판에 새로 삽입된 기사와 초판과 종판 사이에서 내용과 제목에 변화가 있었던 기사가 어떤 신문을 모방했는지를 복수로 코딩하도록 한 결과는 아래의 <표 10> <표 11>의 내용과 같다.

표의 왼쪽에 쓰여 있는 항목은 표의 위쪽에 쓰여 있는 신문을 모방했다는 이야기인데, 기사를 종판에 새로 삽입하는 경우(<표 10>)에도 종판에 이런 저런 내용을 고친 경우(<표 11>)에도 전체를 합산한 빈도에 있어서는 <<중

<표 10> 신문별 종판 기사 삽입 시 모방 신문

항 목	종판 삽입 기사의 모방 신문								합 계*
	경향 신문	동아 일보	대한 매일	세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한국 일보	
경향신문	0 (0.0)	17 (14.8)	16 (13.9)	17 (14.8)	16 (13.9)	23 (20.0)	12 (10.4)	14 (12.2)	115/40 (100.0)
동아일보	10 (11.6)	0 (0.0)	6 (7.0)	8 (9.3)	17 (19.8)	23 (26.7)	11 (12.8)	11 (12.8)	86/35 (100.0)
대한매일	7 (11.5)	7 (11.5)	0 (0.0)	6 (9.8)	10 (16.4)	16 (26.2)	5 (8.2)	10 (16.4)	61/22 (100.0)
세계일보	12 (9.8)	19 (15.6)	17 (13.9)	0 (0.0)	23 (18.9)	25 (20.5)	9 (7.4)	17 (13.9)	122/45 (100.0)
조선일보	9 (10.2)	17 (19.3)	9 (10.2)	8 (9.1)	0 (0.0)	23 (26.1)	10 (11.4)	12 (13.6)	88/40 (100.0)
중앙일보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7)	3/2 (100.0)
한겨레	6 (6.9)	9 (10.3)	12 (13.8)	9 (10.3)	12 (13.8)	28 (32.2)	0 (0.0)	11 (12.6)	87/36 (100.0)
한국일보	15 (9.4)	27 (16.9)	23 (14.4)	14 (8.8)	25 (15.6)	39 (24.4)	17 (10.6)	0 (0.0)	160/59 (100.0)
합 계	59 (8.2)	97 (13.4)	83 (11.5)	62 (8.6)	103 (14.3)	177 (24.5)	64 (8.9)	77 (10.7)	722/279 (100.0)

복수 코딩. () 안은 %.

*합계에서 좌측의 숫자는 건수의 합계이며 우측의 숫치는 사례수의 합계.

양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야기는 합산한 숫치를 중심으로 논의할 경우, 세 신문이 가장 모방을 많이 당한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판매량이나 조직의 규모면에서 이른바 메이저라고 불리는 세 개의 신문사가 마이너로 불리는 다섯 신문의 모방의 대상으로 빈번히 참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여러 다른 신문 가운데 가장 빈번히 참조되고 있기 때문에 합산 점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순으로 1, 2, 3위를 차지한 것이다. 실제 모방한 사례가 이런 정도라면 초판 발행이후 세 신문의 보도에 대해 다른 신문들이 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해

<표 11> 신문별 종판 내용 변화 시 모방 신문

항 목	종판 내용 변화 시 모방 신문								합 계
	경향신문	동아일보	대한매일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0 (0.0)	7 (17.9)	5 (12.8)	2 (5.1)	4 (10.3)	9 (23.1)	6 (15.4)	6 (15.4)	39/13 (100.0)
동아일보	10 (11.5)	0 (0.0)	13 (14.9)	14 (16.1)	13 (14.9)	14 (16.1)	11 (12.6)	12 (13.8)	87/27 (100.0)
대한매일	16 (15.7)	16 (15.7)	0 (0.0)	11 (10.8)	15 (14.7)	17 (16.7)	12 (11.8)	15 (14.7)	102/28 (100.0)
세계일보	19 (16.8)	14 (12.4)	17 (15.0)	0 (0.0)	20 (17.7)	19 (16.8)	10 (8.8)	14 (12.4)	113/35 (100.0)
조선일보	13 (11.2)	21 (18.1)	18 (15.5)	16 (13.8)	0 (0.0)	18 (15.5)	15 (12.9)	15 (12.9)	116/36 (100.0)
중앙일보	4 (11.4)	5 (14.3)	3 (8.6)	5 (14.3)	6 (17.1)	0 (0.0)	8 (22.9)	4 (11.4)	35/12 (100.0)
한겨레	12 (12.8)	11 (11.7)	13 (13.8)	12 (12.8)	14 (14.9)	16 (17.0)	0 (0.0)	16 (17.0)	94/27 (100.0)
한국일보	13 (12.7)	15 (14.7)	11 (10.8)	13 (12.7)	19 (18.6)	19 (18.6)	12 (11.8)	0 (0.0)	102/36 (100.0)
합 계	87 (12.6)	89 (12.9)	80 (11.6)	73 (10.6)	91 (13.2)	112 (16.3)	74 (10.8)	82 (11.9)	688/214 (100.0)

복수 코딩. () 안은 %.

* 합계에서 좌측의 숫자는 건수의 합계이며 우측의 숫치는 사례수의 합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앞서 기존 문헌 검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체 간 의제 설정에 의한 기사 표준화의 경향이 세 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모방을 가장 많이 당하는 신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신문은 표준 가운데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중앙일보》이다. 이를 두고 가판을 없애고 다른 신문들의 가판 인쇄시간으로부터 3시간이 지난 시간에 초판을 찍어 내기 때문에 다른 신문 가판을 모두 보고 모든 가능한 기사 목록을 바탕으로 만든 신문이니 만큼 다른 신문의 모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다른 신문의 가판이 아닌 《중앙일보》 초판과 비슷한 시간에 인쇄되는 다른 신문 두 번째 판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가정을 해볼 수도 있다.

《중앙일보》가 다른 신문 제작의 표준으로서 있는 것이 단지 인쇄가 늦어져 많은 신문을 참고하여 모든 신문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데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해서 다른 신문이 모방할 만한 표준 신문을 만들게 되었는지는 가판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오로지 한 신문의 초판에만 있었던 기사를 모방하게 된 경우만을 골라 별도로 분석을 시도했다. 삽입의 경우나 기사의 내용 및 제목에 있어서 변화를 한 경우 모두에 있어서 《중앙일보》의 피모방 사례 수는 다른 신문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내용을 보이긴 마찬가지였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판에 새로 기사를 삽입하는 경우에 《중앙일보》의 피 모방 사례 수는 전체 피 모방 사례 수(123건)의 57.7%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우위를 보여 2위를 기록하는 《조선일보》(14.6%)와 큰 차이를 보였다. 종판에서 내용 일부와 제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중앙일보》가 우위를 보이긴 마찬가지였다(<표 13>). 전체 피 모방 사례 수(50건)의 22.0%를 차지해 《조선일보》와 동률을 이루면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신문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확인하고, 다듬고 하는 작업이 기사의 품질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업계 스스로가 이미 인

<표 12> 신문별 종판 기사 삽입 시 모방 신문: 단독 보도 사례의 경우

항 목	종판 삽입 기사의 모방 신문								합 계
	경향 신문	동아 일보	대한 매일	세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한국 일보	
경향 신문	0 (0.0)	1 (6.3)	3 (18.8)	0 (0.0)	2 (12.5)	7 (43.8)	0 (0.0)	3 (18.8)	16 (100.0)
동아 일보	1 (5.3)	0 (0.0)	0 (0.0)	0 (0.0)	5 (26.3)	10 (52.6)	1 (5.3)	2 (10.5)	19 (100.0)
대한 매일	1 (12.5)	0 (0.0)	0 (0.0)	0 (0.0)	1 (12.5)	6 (75.0)	0 (0.0)	0 (0.0)	8 (100.0)
세계 일보	1 (5.0)	1 (5.0)	3 (15.0)	0 (0.0)	2 (10.0)	11 (55.0)	1 (5.0)	1 (5.0)	20 (100.0)
조선 일보	2 (11.1)	2 (11.1)	1 (5.6)	1 (5.6)	0 (0.0)	10 (55.6)	1 (5.6)	1 (5.6)	18 (100.0)
중앙 일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한겨레	1 (6.3)	0 (0.0)	2 (12.5)	0 (0.0)	2 (12.5)	11 (68.8)	0 (0.0)	0 (0.0)	16 (100.0)
한국 일보	0 (0.0)	0 (0.0)	1 (4.0)	0 (0.0)	6 (24.0)	16 (64.0)	2 (8.0)	0 (0.0)	25 (100.0)
합 계	6 (4.9)	4 (3.3)	10 (8.1)	1 (0.8)	18 (14.6)	71 (57.7)	5 (4.1)	8 (6.5)	123 (100.0)

$X^2 = 55.678$, $df = 49$, $p = .238$, () 안은 %.

정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평가가 아니라 판단된다.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어느 신문이 가장 빈번하게 다른 신문을 모방하는가를 살펴보면 《중앙일보》를 제외하고 메이저와 마이너 신문들의 모방 사례가 엇비슷한 양태를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0>과 <표 11>의 오른쪽 합계 부분에 있는 숫자 두 개 가운데 왼쪽 것은 종판 신문이 두 개 신문의 초판에 나온 것을 실었을 경우, 두건으로 계산한 것이고 오른쪽 것은 두 개 신문의 초판에 나왔던 세 개 신문의 초판에 나왔던 한번 모방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세계일보》 《한국일보》 모방건수에서 수위를 달리긴 한

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이에 못지않게 다른 신문을 열심히 참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메이저 신문이 메이저 신문을 참조한 경우가 많아 모방의 일방향성은 상당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신문별 종관 내용 변화 시 모방 신문: 단독 보도 사례의 경우

항 목	초/중관 변화에서 기사/제목 모방신문								합 계
	경향 신문	동아 일보	대한 매일	세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한국 일보	
경향 신문	0 (0.0)	1 (25.0)	1 (25.0)	0 (0.0)	0 (0.0)	2 (50.0)	0 (0.0)	0 (0.0)	4 (100.0)
동아 일보	0 (0.0)	0 (0.0)	2 (33.3)	1 (16.7)	2 (33.3)	1 (16.7)	0 (0.0)	0 (0.0)	6 (100.0)
대한 매일	1 (25.0)	0 (0.0)	0 (0.0)	0 (0.0)	2 (50.0)	1 (25.0)	0 (0.0)	0 (0.0)	4 (100.0)
세계 일보	2 (18.2)	1 (9.1)	1 (9.1)	0 (0.0)	5 (45.5)	2 (18.2)	0 (0.0)	0 (0.0)	11 (100.0)
조선 일보	1 (9.1)	4 (36.4)	1 (9.1)	1 (9.1)	0 (0.0)	3 (27.3)	0 (0.0)	1 (9.1)	11 (100.0)
중앙 일보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1 (50.0)	0 (0.0)	2 (100.0)
한겨레	1 (16.7)	1 (16.7)	1 (16.7)	1 (16.7)	0 (0.0)	1 (16.7)	0 (0.0)	1 (16.7)	6 (100.0)
한국 일보	2 (33.3)	0 (0.0)	0 (0.0)	1 (16.7)	2 (33.3)	1 (16.7)	0 (0.0)	0 (0.0)	6 (100.0)
합 계	7 (14.0)	7 (14.0)	7 (14.0)	4 (8.0)	11 (22.0)	11 (22.0)	1 (2.0)	2 (4.0)	50 (100.0)

$\chi^2 = 60.697$, $df = 49$, $p = .122$, () 안은 %.

그렇다면, 메이저 신문과 마이너 신문들이 서로 어떤 주제의 기사를 모방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표 14>와 <표 15>가 하고 있다. 종관에서 새로 기사를 삽입하는 경우, 사회 분야는 는 메이저 신문과 마이너 신문에

<표 14> 종판 기사 삽입 시 메이저/마이너 신문 간 상호 모방 특성 비교

① 마이너의 메이저 모방

항목	기사분야						합계
	정치 (행정포함)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기상/환경/ 보건/과학	
경향신문	8 (25.0)	4 (12.5)	8 (25.0)	1 (3.1)	11 (34.4)	0 (0.0)	32 (100.0)
대한매일	7 (38.9)	4 (22.2)	3 (16.7)	0 (0.0)	3 (16.7)	1 (5.6)	18 (100.0)
세계일보	22 (57.9)	5 (13.2)	5 (13.2)	0 (0.0)	5 (13.2)	1 (2.6)	38 (100.0)
한겨레	12 (37.5)	4 (12.5)	7 (21.9)	0 (0.0)	8 (25.0)	1 (3.1)	32 (100.0)
한국일보	22 (40.7)	3 (5.6)	18 (33.3)	0 (0.0)	9 (16.7)	2 (3.7)	54 (100.0)
합계	71 (40.8)	20 (11.5)	41 (23.6)	1 (0.6)	36 (20.7)	5 (2.9)	174 (100.0)

$\chi^2=23.493$, $df=20$, $p=.265$, () 안은 %.

② 메이저의 마이너 모방

항목	기사분야						Total
	정치 (행정포함)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기상/환경/ 보건/과학	
동아일보	8 (44.4)	0 (0.0)	6 (33.3)		3 (16.7)	1 (5.6)	18 (100.0)
조선일보	10 (38.5)	3 (11.5)	8 (30.8)		4 (15.4)	1 (3.8)	26 (100.0)
중앙일보	0 (0.0)	0 (0.0)	1 (50.0)		0 (0.0)	1 (50.0)	2 (100.0)
합계	18 (39.1)	3 (6.5)	15 (32.6)		7 (15.2)	3 (6.5)	46 (100.0)

$\chi^2=9.876$, $df=8$, $p=.274$, () 안은 %.

* 문화분야 기사의 경우 메이저신문에서는 마이너 신문을 모방한 사례가 전혀 없음.
표의 모양이 일치하도록 칸을 별도로 만들.

<표 15> 종판 기사 내용 변화 시 메이저/마이너 신문 간 상호 모방 특성 비교

① 마이너의 메이저 모방

항목	기사분야					합계
	정치 (행정포함)	경제	사회	스포츠	기상/환경/ 보건/과학	
경향신문	2 (18.2)	2 (18.2)	7 (63.6)	0 (0.0)	0 (0.0)	11 (100.0)
대한매일	15 (62.5)	0 (0.0)	6 (25.0)	2 (8.3)	1 (4.2)	24 (100.0)
세계일보	16 (55.2)	3 (10.3)	8 (27.6)	1 (3.4)	1 (3.4)	29 (100.0)
한겨레	13 (61.9)	0 (0.0)	3 (14.3)	4 (19.0)	1 (4.8)	21 (100.0)
한국일보	17 (58.6)	3 (10.3)	4 (13.8)	5 (17.2)	0 (0.0)	29 (100.0)
합계	63 (55.3)	8 (7.0)	28 (24.6)	12 (10.5)	3 (2.6)	114 (100.0)

$X^2=25.480$, $df=16$, $p=.062$, () 안은 %.

② 메이저의 마이너 모방

항 목	기사분야					합 계
	정치 (행정포함)	경제	사회	스포츠	기상/환경/ 보건/과학	
동아일보	12 (50.0)	4 (16.7)	4 (16.7)	3 (12.5)	1 (4.2)	24 (100.0)
조선일보	15 (51.7)	3 (10.3)	11 (37.9)	0 (0.0)	0 (0.0)	29 (100.0)
중앙일보	3 (25.0)	0 (0.0)	6 (50.0)	1 (8.3)	2 (16.7)	12 (100.0)
합 계	30 (46.2)	7 (10.8)	21 (32.3)	4 (6.2)	3 (4.6)	65 (100.0)

$X^2=15.344$, $df=8$, $p=.053$, () 안은 %.

관계없이 매우 예민하게 취급되어 상호 모방이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는 기사 모방의 절대양이나 상대적인 비율

면에 있어서 메이저신문이 큰 차의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스포츠 분야도 메이저 신문에서 마이너 신문으로 모방되는 사례가 많은 분야의 하나가 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종판에서 내용이나 제목의 일부 내용이 변화되는 경우도 <표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삽입기사 모방 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다만 경제 분야 기사의 경우 삽입기사 모방 때와 달리 상호 참조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차이를 보였다.

(5) 《중앙일보》 기관 폐지 이전과 이후 신문별 모방 특성 변화

1999년 《중앙일보》가 가판을 아직 폐지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황용석 연구의 분석대상 면이 1면을 포함하는 종합면(정치, 오피니언면 포함)과 사회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대상 중 황용석 연구와 일치되는 면만 골라 초판 변화 여부에 관한 《중앙일보》 기관 전후의 비교를 시도했다. <표 16>이 그 결과이다.

신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놓고 보면 두 시기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화 없음’ 비율이 8개 신문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두 시기에서 모두 50% 중반에서 유지되고 있는가 하면 ‘초판 기사 삭제’ 비율 보다는 제목이나 내용에 변화를 가하는 ‘초판-종판 변화’의 비율이 두 시기에서 공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개별 신문사를 별도로 하여 비교를 해보면 변화가 보인다. 중앙 가판 폐지 이전 시기인 1999년 5월과 이후 시기인 2002년 4월 사이에 생긴 가장 뚜렷한 변화는 변화율의 이분화 추세라 할 수 있겠다. 소위 메이저 3사라고 하는 조선, 중앙, 동아의 경우는 변화율이 줄어 든 반면, 마이너로 불리는 신문에서는 《한국일보》를 제외하고 모두 변화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마이너 신문들의 초판 기사 삭제 비율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화율이 달라지면서 신문 간 모방 특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중앙일보》의 경우, 1999년의 분석에서나 2002년의 분석에서 모두 피모방률이 가장 높은 신문으로 자리를 지켰으나 《한겨레》는 많이 추락하는 모습을

<표 16> 신문별 초판 변화 내용의 비교

항목	초판 변화 여부(2002.4.15-20)				합계	초판 변화 여부(1999.5.10-22)				합계
	변화 없음	초판 삭제	초/중판 변화	디자인 변화		변화 없음	초판 삭제	초/중판 변화	디자인 변화	
경향	230 (67.1)	40 (11.7)	61 (17.8)	12 (3.5)	343 (100.0)	430 (69.9)	3 (0.2)	7 (4.1)	35 (5.7)	615 (100.0)
동아	268 (60.8)	64 (14.5)	87 (19.7)	22 (5.0)	441 (100.0)	342 (51.3)	120 (18.0)	145 (21.7)	60 (9.0)	667 (100.0)
대한	195 (53.3)	53 (14.5)	103 (28.1)	15 (4.1)	366 (100.0)	421 (67.4)	79 (12.6)	84 (13.4)	41 (6.6)	625 (100.0)
세계	203 (52.3)	60 (15.5)	100 (25.8)	25 (6.4)	388 (100.0)	409 (59.5)	106 (15.4)	109 (15.9)	63 (9.2)	687 (100.0)
조선	208 (52.8)	51 (12.9)	116 (29.4)	19 (4.8)	394 (100.0)	313 (43.4)	161 (22.3)	164 (22.7)	84 (11.6)	722 (100.0)
중앙	298 (82.8)	9 (2.5)	45 (12.5)	8 (2.2)	360 (100.0)	419 (66.8)	80 (12.8)	81 (12.9)	47 (7.5)	627 (100.0)
한겨레	148 (43.4)	49 (14.4)	111 (32.6)	33 (9.7)	341 (100.0)	354 (53.5)	90 (13.6)	124 (18.7)	94 (14.2)	662 (100.0)
한국	194 (50.0)	53 (13.7)	113 (29.1)	28 (7.2)	388 (100.0)	359 (48.1)	118 (15.8)	184 (24.6)	86 (11.5)	747 (100.0)
합계	1744 (57.7)	379 (12.5)	736 (24.4)	162 (5.4)	3021 (100.0)	3047 (56.9)	817 (15.3)	978 (18.3)	510 (9.5)	5352 (100.0)

$X^2 = 177.463$, $df = 21$, $p = .005$, () 안은 %.

$X^2 = 218.596$, $df = 21$, $p = .000$, () 안은 %.

보였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는 1999년 분석에서보다 2002년의 분석에서 피모방률이 많이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요약해보자면, 1999년으로부터 200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매체 간 의제 설정으로 인한 표준화 경향이 메이저 신문 쪽으로 더욱 공고히 되어 간 형상이라 하겠다. 다른 말로 하자면 표준화가 다소 느슨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중앙일보》의 가판 폐지로 《중앙일보》의 표준화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메이저 신문의 표준화 영향력도 덩달아 함께 올라가, 메이저 3사의 매체 간 의제 설정 능력이 제고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매체 간 의제 설정능력의 집중화가 진행된 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인가, 조사 시기 상의 대형 사건/사고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중앙일보≫의 결심에 의한 신문업계의 추세변화인가. <표 16> 과 <표 17>

<표 17> 신문별 종관 기사 삽입 시 모방 신문 비교(1999. 5. 10~22)

항 목	종관 삽입 기사의 모방 신문									합 계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대한매일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0 (0.0)	14 (13.1)	14 (13.1)	12 (11.2)	11 (10.3)	14 (13.1)	16 (15.0)	10 (9.3)	16 (15.0)	107 (100.0)
국민일보	17 (12.5)	0 (0.0)	19 (14.0)	16 (11.8)	16 (11.8)	15 (11.0)	17 (12.5)	21 (15.4)	15 (11.0)	136 (100.0)
동아일보	6 (6.5)	9 (9.7)	0 (0.0)	10 (10.8)	10 (10.8)	15 (16.1)	16 (17.2)	15 (16.1)	12 (12.9)	93 (100.0)
대한매일	4 (7.7)	6 (11.5)	6 (11.5)	0 (0.0)	4 (7.7)	5 (9.6)	11 (21.2)	10 (19.2)	6 (11.5)	52 (100.0)
세계일보	14 (10.3)	13 (9.6)	20 (14.7)	13 (9.6)	0 (0.0)	19 (14.0)	22 (16.2)	18 (13.2)	17 (12.5)	136 (100.0)
조선일보	10 (8.5)	12 (10.3)	22 (18.8)	13 (11.1)	10 (8.5)	0 (0.0)	18 (15.4)	17 (14.5)	15 (12.8)	117 (100.0)
중앙일보	10 (14.9)	4 (6.0)	8 (11.9)	5 (7.5)	9 (13.4)	8 (11.9)	0 (0.0)	9 (13.4)	14 (20.9)	67 (100.0)
한겨레	6 (7.6)	8 (10.1)	12 (15.2)	8 (10.1)	9 (11.4)	12 (15.2)	12 (15.2)	0 (0.0)	12 (15.2)	79 (100.0)
한국일보	16 (13.7)	11 (9.4)	20 (17.1)	8 (6.8)	10 (8.5)	17 (14.5)	19 (16.2)	16 (13.7)	0 (0.0)	117 (100.0)
1999 합계	83 (9.2)	77 (8.5)	121 (13.4)	85 (9.4)	79 (8.7)	105 (11.6)	131 (14.5)	116 (12.8)	107 (11.8)	904 (100.0)
2002* 합계	46 (8.2)	-	76 (13.6)	69 (12.4)	45 (8.1)	85 (15.2)	120 (21.5)	54 (9.7)	63 (11.3)	558 (100.0)

() 안은 %.

* 1999년도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2002년도 분석대상 자료 중 경제면과, 스포츠면을 제외하고 계산한 내용.

의 내용은 후자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상황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었다면 신문전체의 변화율이 일관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사세와 조직이 커서 인력이 많은 신문들에 서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의 가판 폐지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닐까 판단된다.

5. 결론

《중앙일보》가 가판을 폐지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신문들이 가판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도 정작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가판 유지를 해야 하는 근거로 등장한다. 한 가지는 편집의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유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신문 사업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유이다.

편집의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판이 신문 편집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별 신문사 구성원들에게 당일 신문의 전체 편집 틀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낙종, 오보, 불완전한 기사 등을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신문 영업적인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신문 가판을 발행함으로써 여론 주도층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다. 정보에 민감한 정치권이나 공무원 사회, 기업의 수장들에 대한 최초의 정보 전달 매체가 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에 대한 매체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조선일보》가 가판 폐지를 시도하다 그만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조선일보》가 당시 가판 폐지를 시도해 본 경험으로는 외신보도 등에서 《조선일보》 인지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신문의 질을 높여 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신문의 영향력도 잃지 않아 신문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가판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는 업계의 이러한 주장이 옳은가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한 가지는 정말 독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다시 말해 신문을 통해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하고 수준 높은 기사를 얻을 수 있는가이다. 다른 한 가지는 가판이 신문의 영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신문 가판이 여론 주도층에 대한 영향력을 키움으로써 영업이익의 간접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의 이익은 손해가 없는가 하는 부분과 결부시켜 논의해보기로 하고 가판 자체가 직접 돈을 벌게 해주는가이다.

분석결과, 가판 자체의 운영은 판매량이나 판매가격 등을 따져볼 때,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있어 영업 이익과는 모순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따라서는 전국 동시 인쇄 망을 갖추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발달한 교통망으로 인해 먼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의 배달을 위해 전날 저녁 이른 시간에 서둘러 신문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음이 밝혀졌다. 가판 자체로 인한 영업이익이 없음은 물론 배달판매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독자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초판에서 종판으로 오면서 기사가 많이 정돈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종판에 이르기까지 초판 기사의 약 40%가 바뀌는 과정을 통해 신문에 따라서는 개별 기사의 평균 기사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큼직큼직한 기사를 통한 시원한 편집을 해 가는가 하면 신문에 따라서는 가능한 한 많은 기사를 담아 구색 갖추기를 충실히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신문의 얼굴이라고 하는 1면에서는 초판의 70%에 가까운 기사가 크게 작게 고쳐지는 변화를 하면서 뉘앙스와 디테일을 다듬는 모습

이 보였다. 엄격히 말해 가판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결과가 심야에 늦게 결정되는 경기결과를 반영하여 스포츠면의 초판기사가 30% 정도 변화되고 있는 점도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초판을 짚어낸다는 업계의 변을 일정부분 변호하는 내용이라 역시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다. 역시 가판을 유지하지 않아도 달성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건, 사고의 최신 결과를 전하고자 하는 사회면에서도 스포츠면과 비슷한 비율로 기사가 변화되어 상황변화를 지속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신문업계에서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 변화 내용이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우선 권력과 관련된 내용이 쉽게 삭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다. 특히 정치권력에 대해 기사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초판에서 삭제된 기사 가운데 정치권에 관련된 기사의 비율이 20.0%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제목이 일부 변화되는 비율도 전체 변화 기사 가운데 24.3%에 이를 만큼 많은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가 기관에 대한 기사의 비율도 적지 않아 이들을 합칠 경우 삭제 비율은 34%로서 삭제된 기사 셋 중의 하나가 정치 내지 정부 권력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언론의 권력 감시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생각되어야 할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기사의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에도 삭제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도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다. ‘초판에서 삭제’된 기사의 32.7%, 제목이나 내용, 위치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있는 ‘초판-중판 변화’기사의 41.5%가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초판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의 경우 중판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볼 때, 초판에 등장한 부정적인 내용의 권력 관련 기사는 중판으로 가는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최소한 상당히 순화된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권력 감시라는 독자의 이익에 심대한 위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의 유통에 기초한 건강한 여론 형성에도 가

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판매량이나 조직의 규모면에서 메이저라고 불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 개의 신문사가 마이너로 불리는 다섯 신문의 주요 참조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매체간 의제 설정에 의한 기사 표준화의 경향이 세 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한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메이저 신문과 마이너 신문에 관계없이 상호 모방이 많은 사회 분야와는 달리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는 기사 모방의 절대양이나 상대적인 비율 면에 있어서 메이저신문이 큰 차의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도 일방향의 모방이 상당히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 분야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어서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정치, 경제 분야는 삶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흘러야 할 분야이므로 표준화는 문제가 안 될 수 없다. 경제 분야의 경우, 종판에 기사가 삽입되는 경우와는 달리 제목, 내용이 일부 변하는 상황에서는 메이저와 마이너의 상호 참조가 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이 또한 다양한 의견의 제시라는 관점에서는 그리 좋은 모양이 아니다.

가판을 통한 상호 비교와 상호 모방으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초판을 만들 때 의지와는 달리 종판으로 갈수록 기상, 보건, 환경, 과학 분야와 남북통일 분야와 같은 기사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정치, 경제 분야의 기사가 들어차 정보의 다양한 공급이라는 측면이 훼손되는 경향 또한 발견되었다.

이렇게 볼 때 초쇄 가판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신문 기사의 변화나 변형을 통해 신문사의 비정상적인 영업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자체의 영업이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전국 동시 인쇄망이나 전국 대부분의 거점 도시를 5시간 이내로 묶는 발달된 교통망을 고려할 때 배달 12시간 전에 초쇄를 찍어야 할 이유도 없고, 인터넷, 24시간 방송체제 등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속보성으로 여론 주도층에 대한 언론사의 영향력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사를 빼주거나 고쳐주는 조건으로 각종 광고를 얻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신문광고 수주를 올리는 방식으로 신문사의 영업이익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게 되는데 그러나 이는 정확한 소식을 알고자 하는 독자의 이익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된다.

현재의 초쇄 가판처럼 매우 제한적인 부수를 찍지 않는다면 일찍 찍어 시내에 배포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거기에 실린 기사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기사를 삭제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시적인 시험판의 형식으로 가판을 인쇄하게 되면 기사를 변형시키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일보》의 가판 폐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번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중앙일보》는 신문간 상호 모방에 있어서 중심이었다. 다른 메이저 신문의 피모방률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모방이 없었다는 것은 변화율이 그만큼 적다는 것인데 초판의 85.9%가 종판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며 삭제되는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한번 인쇄해서 내보낸 내용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치지 않는 책임 편집의 자세가 역력했다.

《중앙일보》가 신문간 상호 모방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1999년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가판 폐지 이전부터 있어 온 현상이지만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통해 보면 그 위치가 더 공고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판을 폐지함으로써 많은 신문들이 더 참조하고 모방해야 하는 신문이 되었다는 뜻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신문보다 3시간이 늦게 첫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간에 다른 신문 초판을 다 모방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신문 초판에 없는 《중앙일보》 초판에만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신문 간 모방 행태를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도 역시 《중앙일보》는 모방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신문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확인하고, 다듬고 하는 작업이 기사의 품질 제고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속보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여 여론 주도층에 자사 신문의 인지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높이겠다는 생각도 인터넷이나, 방송매체에 의해 신문이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많은 기사로 인한 신문 신뢰도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저녁 이른 시간에 기사를 마감하는 것이 크게 의미 없는 매체환경이 되었다. 인쇄매체의 장점인 심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판 원고 마감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부터 3~4시간 뒤로 미루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상황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판은 신문의 품질 제고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할 관행이라 판단된다. 특히 외국 신문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기자 수(비슷한 지면의 일본 신문에 비해 약 1/3)를 감안하면, 초판 마감시간마저 일러 충분히 생각하고 기사를 쓰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해에 가까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없애는 경우에도 합심해서 전 신문사가 동시에 없애야 한다. 분석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중앙일보》가 가판을 없애고 난 다음, 이른바 조직과 인력이 충분한 메이저 3사가 표준화의 중심에 서는 경향이 더욱 강해져 몇 개의 신문만이 가판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신문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들이 가판을 계속 유지한다면 특히 정치권력이나 국가기관과의 문제에서 치고 빠지는 행태를 통해 여러 가지 ‘실’들에 춤을 추듯 부화뇌동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정작 책임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판에 대한 독자와 시민단체의 감시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가 지니는 한계이자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매듭짓고자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이 디자인한 그물망으로는 포착되지 않는지만 언론의 권력 감시나 다양한 여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보도 행태가 그것이다. 정치부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판 제작과정을 통해 그 변화의 과정이 비교적 소상히 드러나고 있지만 경제 권력은 <표 9>의 내용에서도 그 일단을 알 수 있듯이 광고주라는 안전지대를 이용하여 초판에

서부터 이미 부정적인 모습이 상당부분 보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경제 권력에 언론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굳이 특정 조사결과를 거명하지 않더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행해진 많은 기자 의식조사에서 자신들의 업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광고주가 1위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근거다.

이 연구결과와 그러한 조사결과 내용을 종합해볼 때, 경제 권력은 광고주라는 배일에 가려 초판이전에 이미 보도망을 빠져나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는 다른 연구방법을 통해 자세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이영태 (2001). 중앙일보 가판 폐지와 언론계 변화. 『신문과 방송』, 372호, 46~49.
- 이종혁 (2002). 가판근무 게이트 키핑(gatekeeping)유형과 이에 대한 언론홍보 실무자들의 평가. 『언론학보』, 46권 6호, 191~224.
- 정운현(2001). 제언 21 : 이런 관행 고치자 / 초쇄 가판을 없애자. 『신문과 방송』, 364호, 68~71.
- 정연구(2002.3). 일간지 가판제도의 문제와 해결 방안. 『일간지 가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주최) 발표문집』, 1~10.
- 조현호 (2001.11.22). 중앙 가판 폐지 첫 달 성적 '우수'. 『미디어 오늘』, 2.
- _____ (2004.9.3). 조선 동아 한겨레 가판 폐지 추진. 『미디어 오늘』, [On-line] 457호. Available: <http://www.mediatoday.co.kr>
- 주동황 (2000). 한국 신문의 가판시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5호, 49~74.
- _____ (2003.3). 노무현 정부의 '가판' 구독 중단과 언론개혁. 『언론노동조

- 합 토론회 발표문집』, 3~22.
- 한국언론재단 (1999). 『신문개성화 저해요인』(연구서 99-05). 서울: 한국언론재단.
- 황용석 (2000). 중앙일간지의 초판신문 비교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4권 4호, 201~247.
- Bennet, W. Lance (1996).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New York: Longman.
- Breed, Warren (1955). Newspaper opinion leaders' and processes of standardization. *Journalism Quarterly*, 32, 277~284.
- Budd, Richard W., Thorp, Robert K., and Donohew, Lewis (1967). *Content analysis of communications*. New York: The Macmillan.
- Crouse, Timothy (1973). *The boys on the bus*. New York: Random House.
- Gans Herbert J.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 Golding, Peter, & Elliot, Phillip (1979). *Making the news*. London: Longman.
- Hartley, John (1982). *Understanding news*. New York: Methuen.
- Hirsh, P. M.(1977), Occupation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models in mass media research: Toward an integrated framework. In P. M. Hirsh, P. V. Miller, & F. G. Kline(eds.). *Strategies of communication research*. Beverly Hills: Sage, 13~42.
- McCombs, M. E. (1987). Effect of monopoly in Cleveland on diversity of newspaper content. *Journalism Quarterly*, 64, 740~745.
- McCombs, M. E. & Shaw, L.B. (1976). Structuring the unseen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26(2), 18~22.
- Schudson, Michael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 New York: Basic Books.
- Sigal, Leon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Lexington: D.C. Heath and Company.
- Tuchman, Gaye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박홍수 옮김 (1995).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

서울: 나남.

Weaver, D. H., & Mullins, L. E. (1975). Content and format characteristics of competing daily newspaper. *Journalism Quarterly*, 52, 257~264.

White, David M. (1950). The 'gatekeeper': A case study in the selection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27, 383~390

Whitney, C.D., & Becker, L.B. (1982). Keeping the gates' for gatekeeper: The effects of wire news. *Journalism Quarterly*, 59, 61~65.

(최초 투고 2004.12.01., 최종원고 제출일 2005.01.08.)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First Edition Newspaper in Korea

Yeon-Goo Cheong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s)

There is a original routine on dealing the first edition newspaper in Korea. Korean national morning newspapers print about 0.5% of total circulation as the first edition and sale those only in Seoul where the newspapers is published. The dead line of first edition is even about 5 pm. According to this routine which couldn't be found in the advanced western nations, like UK, USA etc., there can be some original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n the contents of Korean national morning newspaper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at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means on the quality of newspaper and the free flow of diverse informations and opinions. Content analysis comparing the first edition to the last edition of 8 national morning newspapers is used to reveal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Major findings in the result of the content analysis are three. First, the quality of the newspapers is damaged by the early dead line. Second, Inter-media agenda setting, which minor papers follow major papers on not only contents but also tone & manner, is manifest. Third, the early time publishing of the first edition allow the reported group including government and business sector to take time to do make some negotiations on the articles about them, in which procedure even about 40% of total observed articles are changed(eg. removed, replaced, modified).

Keywords: First edition newspaper, Inter-media agenda setting,
Media and power